

디자인학분야 문헌의 인용분석 연구

- 시각, 제품, 환경디자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itation Analysis of Design Science Literature

김순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정보자료실

Kim Sun Hi,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Design Library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자인학분야 5개 학회(협회)지의 2002년분에 인용된 3,046개 문헌을 인용문헌의 형태별, 발행지별, 발행년도별, 주제별로 분석하여 디자인학분야 연구자의 문헌 이용행태와 문헌의 이용가치 감소현상 즉 반감기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디자인학분야 연구자들은 단행본(62.5%), 학술잡지기사(21.8%), 논문(10.8%), 보고서(2.9%), 기타(2%)순으로 많이 이용하였으며, 단행본의 인용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자료형태별 이용에 있어 국내 디자인학분야 연구자의 연구활동이 국내 사회과학, 미술분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발행지별로 분석한 결과는 국내 디자인학분야 연구자들이 국내문헌을 해외문헌보다 2.5배정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국내문헌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해외문헌을 국내문헌보다 2배정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 사회과학분야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디자인학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것이나 4배정도 국내문헌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 미술분야의 선행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디자인학분야 문헌의 반감기는 5.75년이었으며, 자료형태별 반감기는 단행본(6.64년), 논문(5.97년), 학술잡지기사(4.55년), 기타(3.73년), 보고서(3.41년) 순으로 분석되었고, 발행지별 반감기는 해외문헌(9.1년), 국내문헌(5.1년)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타주제와의 관계분석에 있어 경영학, 건축술, 공학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디자인학이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증진의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 서 론

정 및 이용행태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으나, 디자인학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1 연구 목적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여러 주제분야에서 인용분석연구를 수행하여 반감기 측

여기서는 우리나라 디자인학분야 5개 학회(협회)지의 2002년분에 인용된 3,046개 문헌을 인용문헌의 형태별, 발행지별, 발행

〈표 1〉 연구대상 학회(협회)지

학회지명	발행처	논문수	전체인용 문헌수	서지사항 미비 인용문헌수	연구대상 인용문헌수	주제분야
디자인학연구	한국디자인학회	198	2,417	193	2,224	디자인학
일러스트레이션학 연구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3	240	22	218	시각디자인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비주얼디자인학회	20	276	36	240	시각디자인
디자인 연구	한국산업디자인협회	4	88	1	87	제품디자인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한국실내디자인학회	48	292	15	277	환경디자인
	계	293	3,313	267	3,046	

※ 디자인학연구: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등 디자인학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룸

년도별, 주제별로 분석하여 디자인학분야 연구자의 문헌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문헌의 이용가치 감소현상 즉 반감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학분야 도서관의 장서개발, 서비스 개선 및 국가 디자인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해 살펴본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디자인학분야의 대표적인 5개 학회(협회)지 즉 디자인전반을 다루는 「디자인학연구」, 시각디자인을 다루는 「일러스트레이션학연구」, 「한국디자인포럼」, 제품디자인을 다루는 「디자인연구」, 환경디자인을 다루는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2002년 발행분을 대상으로 하여 5개 학회(협회)지 293편에 인용된 총 3,313개 인용문헌중 서지사항이 미비한 267개를 제외한 3,046개의 인용문헌을

자료의 형태별, 발행지별, 발행년도별, 주제별로 분석 처리하였다.

자료의 이용을 감소는 표본에 인용된 자료의 출판년도를 기록하고, 표본의 출판년도로부터 표본에 이루어진 모든 인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까지의 반감기를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용어 정의

자료의 이용률 감소 즉 노화에 대해 라인과 새디슨 (Line & Sandison)은 장서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각 자료의 대출을 연구함으로써 자료의 노화 비율을 알아내는 것을 “통시적”(diachronous) 노화, 현재 대출되는 자료를 취한후, 각 자료의 출판년도를 소급하여 연구함으로써 노화를 추정하는 것을

“한시적”(synchronous) 노화라고 불렀다. 여러 연구자들은 한시적 노화와 통시적 노화가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예를 들면, 이 용수명 5년이 반감기 5년과 같은 것이라고 - 가정하였다. 그러나 라인과 샌디슨(Line and Sandison, 1974)은 한시적 노화가 통시적 노화에 대한 우수한 예측 지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스틴슨과 랭카스터(Stinson and Lancaster, 1987)도서관 이용데이터가 아닌 인용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동시적으로 측정된 노화가 통시적으로 측정된 노화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반감기(Half-life)는 본래 “어떤 종류의 방사성물질 일정량을 구성하는 원자수의 반(半)이 붕괴되어지는 소요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과학분야 문헌의 일반적 가치수명감소과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1960년 이래 흔히 핵 물리학의 방사성물질 반감기 개념이 적용되어 왔다. 이 방법을 설파력있게 제시한 사람은 버턴(Burton, R.E.)과 케블러(Kebler, R.W.)였는데 이들은 어떤 방사성물질이든지 그것의 일정량을 구성하는 원자수의 반이 붕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언제나 같으며, 또 처음 반의 붕괴는 급속히 진행되나 나머지 반의 붕괴는 점차 느려진다는 현상이 과학문헌의 이용가치(수명) 감소현상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2.2 선행 연구

인용분석은 1927년 Gross와 Gross의 연

구이래로 1960년 버턴(Burton, R.E.)과 케블러(Kebler, R.W.)가 핵물리학 분야의 방사성 물질반감기 개념을 적용하여 과학문헌의 수명 감소 속도측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측정된 방법은 문헌이 출판된 이후 경과된 시간(t)과 잔여이용가치(y)사이의 관계성을 $y=ae^{-x}+be^{-2x}$ 라는 음지수함수의 합으로 나타낸 것이다.

1963년에는 코올(Cole, P.F.)이 자료의 중위년을 계산하여 자료의 이용도와 경과년수가 지수관계임을 밝혔고, 얼(Earle, P.)과 비커리(Vickery, B.C.)가 1965년에 영국에서 간행된 사회과학분야 문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라인(Line, M.B.)은 정보의 수가 일정한 지수(Index)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표면상의 반감기에서 문헌의 증가요소를 제거하여 측정된 수정반감기(Corrected-half-life)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후에도 미야지미끼오(宮地見記夫)와 플렛처(Fletcher, J.)도 각각 경제학분야의 인용분석연구를 수행하여 반감기를 측정한 바 있으며, 첸(Chen, C.C.)은 물리학잡지를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조사에서 물리학잡지를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조사에서 물리학잡지의 반감기와 자료의 폐기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71년 유경희가 과학문헌의 수명감소에 관한 법칙을 이용하여 인용문헌 관계연구를 시도한 것이 최초의 연구이며, 이를 기점으로 1972년 신정원이 우리나라 의학분야 연구자들의 외국문헌 의존도

〈표 2〉 인용문헌의 형태별 분석

구분	단행본	학술잡지기사	논문	보고서	기타	계
디자인학연구	1,377	509	218	71	49	2,224
일러스트레이션학 연구	152	23	35	5	3	218
한국디자인 포럼	150	45	36	4	5	240
디자인연구	58	17	11	1	-	87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166	72	30	6	3	277
계 (%)	1,903 (62.5%)	666 (21.8%)	330 (10.8%)	87 (2.9%)	60 (2%)	3,046 (100%)

와 수명반감기를, 1975년에 구자영이 화학 분야를, 1977년에는 한복희가 원자력분야를, 1978년에 박정윤에 의한 경제학분야의 인용문헌 분석연구가, 그리고 1980년대는 정춘화가 역사학, 김영귀는 체육학을, 1982년 박영홀이 식품학을 대상으로, 1983년에 정진식에 의한 경제학 분야와 김태수의 의학, 김석영의 영양학, 최희운의 경영학분야를 대상으로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984년에는 최승주에 의한 전자계산학, 김양순이 원예학을, 1987년 이명희가 교육학을, 1991년에는 권영숙이 한국미술분야논문의 인용분석을, 1993년 12월 신은자가 정진식에 의해 수행된 바 있는 그의 논문 「경제학문헌반감기연구」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학문헌 이용률감소현상과 장서폐기연구가 수행되었다.

1994년에는 정진식이 사회과학문헌 인용 분석연구를, 이해영이 한국전기·전자공학 분야의 인용분석연구를 실시하였으며, 1995년에는 최상기가 한국과 일본의 기계공학

분야의 인용분석 비교연구를, 2002년에는 이윤혜, 이춘실이 한국 의학학술지의 인용도 및 인용분석지표의 특성연구를, 2003년에는 최희곤이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Ⅲ 인용문헌의 형태별, 발행지별, 발행년도별, 주제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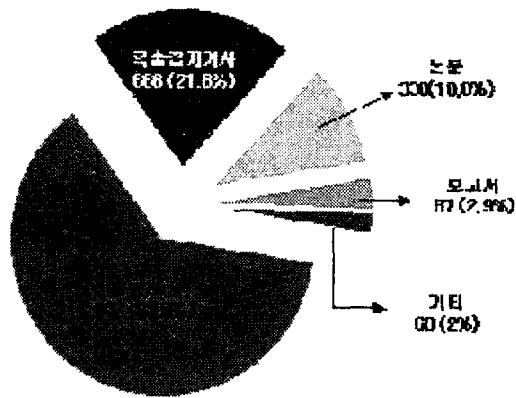
디자인학분야 문헌의 반감기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5개 학회(협회)지의 3,046개 인용문헌들을 자료의 형태별, 발행지별 및 발행년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3.6.1 인용문헌의 형태별 분석

5개 학회(협회)지의 3,046개 인용문헌들을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단행본이 1,903개(62.5%)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학술잡지기사 666개(21.8%), 논문 330개(10.8%), 보고서 87개(2.9%), 기타 60개(2%) 순으로 인용되었다.

〈도표 1〉 인용문헌의 형태별 비율



이러한 단행본〉 학술잡지기사〉 논문〉 보고서순의 형태별 인용율은 〈표 3〉 선행연구의 인용문헌 형태별 분석결과에서 박정윤의 경제학분야 연구결과가 단행본 67.2%, 학술잡지기사 30.0%, 보고서가 2.8%순으로, 정진식의 국내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문헌에 대한 자료형태별 분석결과가

단행본 57.28%, 학술잡지기사 35.98%, 논문 3.75%, 보고서 1.34% 순으로 분석되었고, 권영숙의 미술분야연구에서 단행본 63.9%, 학술잡지기사 20.5%, 논문 6.7%, 보고서 0.1%, 고서 5.7%, 기타 3.1% 순으로 단행본의 인용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디자인학분야도 유사한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료형태별 이용에 있어 국내 사회과학, 미술, 디자인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6.2 인용문헌의 발행지별 분석

인용문헌을 발행지별로 분석한 결과 총 3,046개 인용문헌중 국내문헌이 2,170개(71.2%)로, 해외문헌 876개(28.8%)보다 2.5배 많이 이용되었다.

〈표 3〉 선행연구의 인용문헌 형태별 분석

(단위:%)

구분	단행본	학술잡지기사	논문	보고서	고서	기타	계
경제학분야 (박정윤)	67.2	30.0	-	2.8	-	-	100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분야 (정진식)	57.28	35.98	3.75	1.34	-	1.65	100
미술분야 (권영숙)	63.9	20.5	6.7	0.1	5.7	3.1	100

〈표 4〉 인용문헌의 발행지별 분석

구 분	단행본	학술잡지기사	논문	보고서	기타	계
국내문헌	1,327 (69.7%)	381 (57.2%)	326 (98.8%)	83 (95.4%)	53 (88.3%)	2,170 (71.2%)
해외문헌	576 (30.3%)	285 (42.8%)	4 (1.2%)	4 (4.6%)	7 (11.7%)	876 (28.8%)
계	1,903 (100%)	666 (100%)	330 (100%)	87 (100%)	60 (100%)	3,046 (100%)

〈표 5〉 인용문헌의 언어별 분석

구 분	단행본	학술잡지기사	논문	보고서	기타	계
영 어	522 (90.6%)	253 (88.8%)	2 (50%)	2 (50%)	5 (71.4%)	784 (89.5%)
일 어	28 (4.9%)	29 (10.1%)	2 (50%)	2 (50%)	2 (28.6%)	63 (7.2%)
독 어	16 (2.8%)	3 (1.1%)	-	-	-	19 (2.2%)
불 어	10 (1.7%)	-	-	-	-	10 (1.1%)
계	576 (100%)	285 (100%)	4 (100%)	4 (100%)	7 (100%)	876 (100%)

※ 다국어화된 자료중 영어병기자료는 영어로 분류

〈도표 2〉 인용문헌의 발행지별 비율



앞의 〈표 4〉분석결과를 통해볼 때 단행본, 학술잡지기사, 논문, 보고서 등은 각 자료형태별로도 모두 국내문헌이 해외문헌에

비해 월등히 많이 인용된 것으로 디자인학 분야 연구자들이 국내 문헌에 많이 의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876개 해외인용문헌의 언어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어가 784개로 89.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어 19개(7.2%), 독어 19개(2.2%), 불어 10개(1.1%)순으로 인용되었고, 그 외의 언어자료는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과학분야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즉 정진식의 사회과학분야 연구결과는

〈표 6〉 인용문헌의 반감기 분석

구 분		단행본	학술잡지기사	논문	보고서	기타	계
국내문헌	수량	1,327	381	326	83	53	2,170
	반감기	5.75년	3.76년	6년	3.43년	4.25년	5.1년
해외문헌	수량	576	285	4	4	7	876
	반감기	10.03년	6.93년	2.5년	3년	2.5년	9.1년
계	수량	1,903	666	330	87	60	3,046
	반감기	6.64년	4.55년	5.97년	3.41년	3.73년	5.75년

국내문헌이 1,349개(32.21%)인데 비해 해외문헌이 2,830개(67.79%)로 약 2배 정도 높아 대체로 해외문헌에 의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숙의 국내 미술분야 선행연구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 미술분야도 한국어 79.9%, 일본어 5.2%, 중국어 5.3%, 영어 5.2%, 한문 4.4%로 국내문헌에 많이 의존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국내 미술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학분야 연구자들이 사회과학분야와 달리 국내문헌에 크게 의존하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① 국내 문헌의 입수 용이성 ② 해외문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2차서지자료 부족 ③ 외국어 능력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6.3 인용문헌의 반감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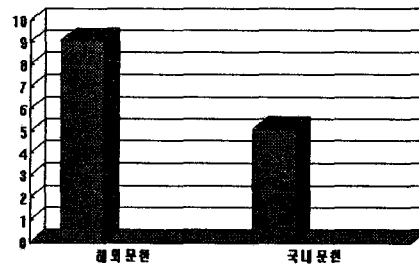
인용문헌의 발행년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디자인학분야 문헌의 반감기는 5.75년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료형태별, 발행지별 반감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형태별 반감기는 단행본 6.64년, 논

문 5.97년, 학술잡지기사 4.55년, 기타 3.73년, 보고서 3.41년 순으로 분석되었다.

발행지별 반감기는 해외문헌 9.1년, 국내문헌 5.1년으로 국내 문헌의 반감기가 해외 문헌에 비해 4년정도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 단행본은 해외 단행본에 비해 4.28년 짧으며, 국내 학술잡지기사의 반감기는 해외 학술잡지기사에 비해 3.17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논문의 반감기는 해외 논문에 비해 3.5년, 국내 보고서는 해외 보고서에 비해 0.43년, 국내 기타 자료는 해외 기타 자료에 비해 3.5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 인용문헌의 발행지별 반감기 비율



이러한 반감기 분석결과를 타학문에 대

〈표 7〉 선행연구의 인용문헌 반감기 분석

구 분	반감기	구 분	반감기
미술분야 (권영숙)	9.302년	원예학분야 (김양순)	7년
통계학분야 (박성미)	7.9년	국어학분야 (정준민)	6년
경제학분야 (박정윤)	7.9년	체육교육분야 (김영귀)	4.7년
영양학분야 (김석영)	7년	전자계산학분야 (최승주)	3.32년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디자인학분야 문헌의 이용수명이 전자계산학(3.32년)과 체육교육분야(4.7년)를 제외한 사회과학(7.9년), 미술(9.302), 원예학(7년), 영양학(7년), 국어학(6년)등의 타학문보다 0.25년~3.25년 짧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학분야 문헌이 짧은 이용수명동안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배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해외 디자인학문헌과 국내 디자인학문헌 이용수명간의 4년이라는 Gap을 극복하고 나아가 디자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문헌에 대한 2차서지와 번역·출판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6.4 핵심잡지 선정 및 타주제와의 관계분석

인용된 284종 666개 학술잡지 기사를 언어별, 최다인용빈도순로 구분·분석하고, 핵심잡지를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2회이상 인용된 75종의 학술잡지가 전체 학술잡지기사 인용문헌의 64.1% (427개)를 차지하였으며, 3회이상 인용된 42종의 학술잡지가 전체 학술잡지기사 인

용문헌의 53.8%(358개)를 차지하였다. 3회 이상 인용된 42종의 핵심잡지중 국내 학술잡지 21종의 인용횟수가 258개로 핵심잡지 인용빈도의 72.1%를 차지하는 것으로 핵심잡지에 있어서도 국내 문헌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5개 디자인학분야 학회(협회)지에 인용된 284종 666개 학술잡지기사와 디자인학과의 관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용된 학술잡지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9〉와 같이 자기주제(디자인학)인용율은 56.9%이며, 타주제관련도는 43.1%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인용된 타 주제분야는 경영학으로 88개 인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건축술 55개, 예술 30개, 교육학 22개, 전산학 16개, 공학 15개, 심리학 14개 등의 순으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권영숙의 미술분야 인용분석에서 자기주제인용율(미술)이 77.9%이며, 많이 인용된 타주제분야가 역사, 종교, 예술, 철학순인것과 비교할 때, 디자인학이 예술분야의 학문과는 달리 경영학, 공학, 건축 등의 다양한 인접한 학문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분야를 디자인학에 수용함으로써 단순히 미를 추구하

〈표 8〉 인용빈도에 따른 핵심잡지 분석

순위	학술잡지명	인용 횟수	언어	순위	학술잡지명	인용 횟수	언어
1	디자인학연구	64	한국어	22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	영어
2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2	한국어	23	Harvard Business Review	5	영어
3	월간 디자인	19	한국어	24	Communication Arts	5	영어
4	Journal of Consumer Reseach	17	영어	25	Advanced in Consumer Research	5	영어
5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	한국어	26	월간 MOE	4	한국어
6	산업디자인	14	한국어	27	코스마	4	한국어
7	임프레스웹디자인	14	한국어	28	Design Management Journal	4	영어
8	건축	13	한국어	29	LG AD	3	한국어
9	Journal of Interior Design	10	영어	30	건축과 환경	3	한국어
10	Design Studies	10	영어	31	건축문화	3	한국어
11	디자인네트	8	한국어	32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	한국어
12	제일커뮤니케이션	8	한국어	33	일러스트레이션학 연구	3	한국어
13	광고연구	7	한국어	34	Psychological Review	3	영어
14	월간디자인 Web+Digital	7	한국어	35	Proceeding of the Human Factors Society	3	영어
15	デザイン學研究	6	일어	36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3	영어
16	Journal of Marketing	6	영어	37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3	영어
17	광고정보	5	한국어	38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	영어
18	교육공학연구	5	한국어	39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	영어
19	정보과학회지	5	한국어	40	Journal of Advertising	3	영어
20	한국감성과학회지	5	한국어	41	Empirical Studies of The Arts	3	영어
21	한국의류학회지	5	한국어	42	Domus	3	영어

계 : 42종 358개
(한국어 23종 258개, 영어 18종 94개, 일어 1종 6개)

※ 다국어로된 자료중 영어병기자료는 영어로 분류

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증진의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과 같이 포괄적으로 여러 인접학문의 자료 특히 해외 경영학분야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디자인전문도서관들의 ILL (Inter Library Loan)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 9〉 인용 학술잡지기사의 주제별 분석

주제분야	인용횟수	비율
디자인학	379	56.9%
경영학	88	13.2%
건축술	55	8.3%
예술	30	4.5%
교육학	22	3.3%
전산학	16	2.4%
공학	15	2.3%
심리학	14	2.1%
문헌정보학	12	1.8%
사회학	10	1.5%
천문학, 생태학	6	0.9%
의학	6	0.9%
가정학	5	0.8%
정치학	2	0.3%
종교	2	0.3%
문학	2	0.3%
행정학	1	0.1%
포장	1	0.1%
계	666	99.9%

IV 결 론

인용문헌을 이용한 연구자의 이용행태와 문헌의 반감기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학분야 문헌을 자료의 형태별

로 분석한 결과 단행본 1,903개(62.5%), 학술잡지기사 666개(21.8%), 논문 330(10.8%), 보고서 87개(2.9%), 기타 60개(2%) 순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사회과학분야의 선행연구들이 밝힌 결과와 비교해볼 때, 박정윤의 분석에서는 단행본이 67.2%, 학술잡지기사 30.0%, 보고서가 2.8%이었으며, 정진식의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문헌에 대한 자료형태별 분석결과가 단행본 57.28%, 학술잡지기사 35.98%, 논문 3.75%, 보고서 1.34% 순으로 분석되었고, 권영숙의 미술분야연구에서 단행본 63.9%, 학술잡지기사 20.5%, 논문 6.7%, 보고서 0.1%, 고서 5.7%, 기타 3.1% 순으로 단행본의 인용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단행본, 학술잡지기사, 논문, 보고서순으로 많이 인용되었으며, 단행본의 인용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료형태별 이용에 있어 국내 사회과학, 미술분야와 디자인학분야 연구자의 연구활동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자료수집비의 배분에 있어 학술잡지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수집해야 한다고 하는 기존의 수집정책과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인용문헌을 발행지별로 분석한 결과 총 3,046개 인용문헌중 국내문헌은 2,170개(71.2%)이고, 해외문헌은 876개(28.8%)로 국내문헌이 2.5배정도 많이 이용되어 국내 디자인학분야 연구자들이 국내문헌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해외 문헌을 2배정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 사회과학분야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디자인학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것이나, 약 4배정도 국내문헌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 국내 미술분야 선행연구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정진식의 사회과학분야 연구결과는 국내문헌이 32.21% 인데 비해 해외문헌이 67.79%로 약 2배정도 높아 대체로 해외문헌에 의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숙의 국내 미술분야 연구결과는 한국어 79.9%, 일본어 5.2%, 중국어 5.3%, 영어 5.2%, 한문 4.4%로 해외문헌보다 약 4배정도 국내문헌에 많이 의존하였다.

3) 디자인학분야 문헌의 반감기는 5.75년이었으며, 자료형태별 반감기는 단행본 6.64년, 논문 5.97년, 학술잡지기사 4.55년, 기타 3.73년, 보고서 3.41년 순으로 분석되었다.

발행지별 반감기는 해외문헌 9.1년, 국내 문헌 5.1년으로 국내 문헌의 반감기가 해외 문헌에 비해 4년정도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디자인학분야 문헌이 전자계산학, 체육교육분야등 일부 학문분야를 제외한 사회과학, 미술분야등의 타학문분야보다 이용수명이 짧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디자인학분야 국내문헌의 이용수명이 해외문헌보다 4년정도 짧은 것은 디자인학분야 해외문헌이 국내에 번역·출판

되는 주기 및 국내 디자인산업발전속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해외문헌에 대한 2차서지와 번역·출판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수명이 짧은 국내 단행본, 학술잡지기사는 단기간에 이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구입 및 서가 배치와 배열에 신중을 기하여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며, 이용수명이 긴 해외문헌자료는 장기간 노출시켜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인용된 284종 666개의 학술잡지기사 중 2회이상 인용된 75종의 학술잡지가 전체 학술잡지기사 인용문헌의 64.1%(427개)를 차지하였으며, 3회이상 인용된 42종의 핵심 학술잡지가 전체 학술잡지기사 인용문헌의 53.8%(358개)를 차지하였다. 또한 42종의 핵심잡지중 국내학술잡지 21종의 인용횟수가 258개로 핵심잡지인용빈도의 72.1%를 차지하는 것으로 핵심잡지에 있어서도 국내 문헌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5) 인용된 284종 666개 학술잡지기사와 디자인학과의 주제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제(디자인학)인용율은 56.9%이며, 타주제관련도는 43.11%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인용된 타 주제분야는 경영학이며, 다음으로는 건축술, 예술, 교육학, 전산학, 공학, 심리학등의 순으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디자인학이 예술분야의 학문과는 달리 경영학, 공학, 건축 등의 다양한 인접

한 학문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분야를 디자인학에 수용함으로써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증진의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과 같이 포괄적으로 여러 인접학문의 자료 특히 해외 경영학분야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디자인전문도서관들의 ILL (Inter Library Loan)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F.W. Lancaster 저, 장혜란 역, 도서관서비스평가론. 서울 : 구미무역, 1990.
- 박정윤, 한국경제학자들의 문헌이용동태 : 인용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정진식, 사회과학문헌 인용분석연구 :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중심. 정보관리학회지 제11권 2호(1994) : 31-48.
- 최희곤,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1호(2003.3) : 61-79
- Lancaster, F.W., If you want to evaluate your library... (second edition)
Champaign :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93.